

		보도 설명 자료		ENVISION THE MOBILITY OF TOMORROW
		배포일시	2025. 08. 06. (수)	
담당 부서	글로벌정책 전략실	책임자	유민상 상 무 ☎ (070) 5066-4910	
		담당자	조민영 매니저 ☎ (070) 5066-4909	
보 도 일 시		즉시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한국 자율주행 기술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25. 08. 06. 한국경제)>

- ◆ 韓서 기술 만들고, 日서 달리는 자율주행..."혁신 역수출하는 꼴"
- 규제에 막혀...'국내 1위 자율주행 스타트업' A2Z 일본행
- ◆ "68만km 달리고도 수익 0원"...1위 자율주행 스타트업 일본행
- ◆ [사설] 韓 1위 자율주행 기업 일본행...참담한 규제의 현주소

-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한국 자율주행 기술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의 최선두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국내 최대 규모 자율주행 경험을 기반(55대, 69만km)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2024년 12월, 대한민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미국 시장조사기관 가이드하우스가 발표한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의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순위 11위에 랭크되었으며, 2025년 5월에는 대한민국 기업 최초로 우핸들 국가인 싱가포르 공공도로 자율주행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 특히,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를 무상으로 개방하였기에, 도로환경이 우리나라와 반대인 우핸들 국가의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 이렇게 개발한 우핸들 자율주행 기술로 또다른 우핸들 국가인 일본으로 진출하고자 지난 5일, 일본에서 136년 전통을 가진 종합상사 가네마쓰 주식회사와 자율주행 기술 공동 사업화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자율주행 기술의 일본 시장 도입 및 실증 추진 △현지 인증 및 법규 공동 대응 △합작법인 설립 가능성 검토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업간 거래를 넘어, 국내 자율주행 기술을 해외 시장에 선보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추진한 프로젝트입니다.

□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싱가포르와 UAE에 이어 세 번째 글로벌 진출국가로 일본을 택한 배경은 ‘대한민국의 탈규제’ 때문이 아니라,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와 정책적으로 유사하게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현재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국제기준(UN Regulation)은 제정 논의 중에 있어, 지난 2022년 독일이 세계 최초로 자국법을 마련하였으며, 뒤이어 2023년에 일본이, 2024년에 대한민국이 세계 세 번째로 레벨4 성능인증제도라는 자국법(자율주행자동차법)을 마련하였습니다.

○ 일본은 2020년 11월 전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의 인증을 승인한 국가(혼다社)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일본은 대한민국과 더불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지대한 세계적 정책선도국 중 하나입니다.

○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에 따른 인구부족과 지방소멸 등 사회문제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약화하고 있어 지방 정부의 자율주행 기술 수요와 사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동군과 같이 인구소멸로 기사 인력이 부족한 도시들에서 자율주행 사업을 시작한 대한민국과 정책적 유사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일본 136년 전통의 상사와 금번 협약을 체결한 이유는 이러한 일본의 정부사업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진출한 미국의 웨이모, 영국의 웨이브 모두 조 단위 투자를 받은 만큼 자체 예산을 활용하지만 이들 대비 투자금액이 현격히 적은 대한민국 기업으로서는 자체 예산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 즉,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자국에서 사업이 어려워 해외로 나가는 ‘혁신의 역수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K-자율주행 모델 그대로 수출할 수 있는 활로를 직접 찾아 ‘혁신 수출’의 선봉장에 서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가장 큰 파트너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 2024년 연매출 **107억**은 대부분 정부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통해 얻은 용역 매출로 발생**했습니다. 정부사업 덕에 스타트업 초기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설 수 있었으며, 이제는 더 큰 매출을 목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이 **2025년 3월 20일부로 시행되어 기업간거래(B2B)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레벨4 자율주행 차량 판매와 유상운송은 더 이상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 레벨4 자율주행 성능인증제도인 자율주행 자동차 특별법은 **2022년 5월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TF에서 건의한** 안건이 ‘수용’으로 결정된 후, 2년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노력이 더해져 지난 2024년 3월 19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금년내에 공포된 법안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여 세계 최초로 정부 인증을 받은 레벨4 자율주행차 출시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사업자들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제도 제정 이후 현재까지 **9년간** 전기차로 자율주행차를 만들더라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2025년 4월 21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어 자율주행 사업자들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2025년 2월** 신기술·신산업분야 간담회에서 건의한 안건이 **수용**된 것입니다. 이에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이번달부터 구매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구매보조금 신청도 완료한 상황입니다.
-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작은 스타트업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인 덕에 자율차 상용화의 기반이 다져질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대한민국 정부는 자율주행기술을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간주하고 있었으며, 민간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과 공공기관의 의무도입제도로 60만대 전기차 강국**이 되었듯, 다져진 기반 위에 채워나갈 마중물만 더해지면 우리는 자율차 강국으로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대한민국 기술로만 만든 국산화율 **96%의 레벨4 자율주행 자동차 ROii**는 대한민국을 달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에 의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업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